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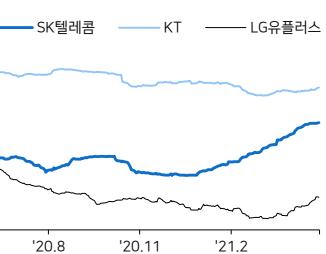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0.7	2.1	3.1	30.3	12.8	12.8	1.2	1.2	1.6	1.6	
통신업종	3.1	10.9	23.3	32.2	10.8	10.8	0.8	0.8	3.6	3.6	
SK텔레콤	2.8	11.4	23.8	37.4	11.7	8.9	0.9	0.9	3.3	3.5	
KT	1.4	5.2	22.0	28.2	9.7	8.8	0.5	0.5	4.9	5.2	
LG유플러스	6.0	11.5	12.0	18.6	9.4	8.1	0.8	0.7	3.4	3.6	
AT&T	2.4	7.2	11.8	17.2	10.2	10.2	1.3	1.3	6.5	6.4	
Verizon	1.6	1.9	6.7	0.3	11.5	11.4	3.1	2.8	4.3	4.4	
T-Mobile	5.3	6.9	10.3	12.6	58.9	40.7	2.6	2.4	0.0	0.0	
NTT	2.4	2.3	2.2	24.1	11.4	9.6	1.3	1.2	3.6	3.9	
KDDI	1.8	-2.1	1.3	13.0	11.9	11.7	1.7	1.6	3.6	3.8	
Softbank	-1.3	0.0	5.4	48.8	4.5	19.8	2.3	1.9	0.4	0.4	
China Mobile	-3.8	-1.3	7.0	-1.5	7.6	7.3	0.7	0.7	7.0	7.1	
China Unicom	0.9	3.0	3.0	-11.5	8.1	7.2	0.3	0.3	5.0	5.5	
China Telecom	4.8	4.4	30.0	11.7	8.6	8.2	0.5	0.5	4.8	5.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39.6% (+0.1%p WoW, +1.4%p MoM)

KT 43.4% (+0.2%p WoW, +0.3%p MoM)

LGU+ 31.6% (+0.5%p WoW, +1.7%p MoM)

통신3사, 외국인 지분율 순매수 3주 연속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5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4%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국내 통신업종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으로 외국인 지분율 지속적으로 상승
LG유플러스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를 기록하며 경쟁사 대비 Outperform
국내 기관은 KT, LGU+ 순매수, SK텔레콤 순매도. 외국인은 KT, SK텔레콤, LGU+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11일 SK텔레콤과 KT, 12일 LG유플러스가 각각 1Q21 실적 발표 예정
통신 3사 모두 5G 가입자 증가 영향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기대
외국인 지분율 상승세가 두렷해지고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매수 추천 의견 유지
5G 통신장비는 하반기 북미/유럽/인도/아시아 지역 장비 공급이 시작되며 센티멘트 개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SKT & KT 1Q21 실적발표
LGU+ 1Q21 실적발표

3 주간 뉴스

삼성전자, 폴란드 이통사와 5G 시범 운영... "유럽 입지 확장"

(전자신문)

- 삼성전자, 폴란드 이동통신사 '플레이'와 2분기 현지에서 5G 이동통신 솔루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
- 기존 플레이 2G · 3G 레거시 네트워크와 삼성전자 최신 솔루션간 상호 운용성 테스트도 진행
- 플레이는 가입자가 1,500만명에 이르는 폴란드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로 최근 5G망 구축 시작
- ⇒ 폴란드는 2019년 미국과 5G 네트워크 안보 협약을 맺고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 배제하기로 합의
- ⇒ 화웨이 배제 및 5G 시범 운영으로 폴란드내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장비 추가 수주를 통한 수혜 전망

SK텔레콤, 자사주 2조6천억원 규모 소각한다

(ZD Net Korea)

- SK텔레콤, 4일 이사회를 열고 약 2조 6,000억원 규모 자사주 869만주를 전격 소각하기로 결정
- SK텔레콤이 소각하는 자사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8% 규모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량
-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 감소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통상 상승하는 등 호재로 작용
- ⇒ 인적분할 추진 발표에 이어 자사주 소각으로 기업분할 전 SK텔레콤 기업가치 극대화
- ⇒ 남은 일정은 인적분할 이사회, 합산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리스크 대비가 필요한 시점

인도, 결국 中 외면했다…5G사업서 화웨이 · ZTE '배제'

(한국경제)

- 인도 통신부, 릴라이언스지오, 바라티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 등 자국 통신사의 5G 시험 사업 허용
- 해당 사업은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의 기업 허용. 해당 성명에는 중국 화웨이와 ZTE는 배제
- 또한 인도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반중 정서 심화로 중국제 제품 불매 운동이 지속 중
- ⇒ 인도는 지난 3월 주파수 경매를 완료했으며 지오, 바라티 에어텔, 보다폰 순으로 주파수 확보
- ⇒ 올해 중순부터 본격적인 5G 투자 전망, 화웨이 배제로 삼성전자 및 밸류체인 업체들 수혜 기대

▶ 삼성-에릭슨 5G특허 분쟁 종료

(매일경제)

- 에릭슨, 7일 삼성전자와 양사 간 이동통신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발표
- 계약 체결로 4세대(4G) ·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둘러싸고 벌여온 양사간 특허 분쟁 종결
- 올해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양사의 네트워크 장비와 휴대전화 등에 이 계약이 적용될 예정
- ⇒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및 중국에서 이동통신 기술 관련 특히 분쟁 진행
- ⇒ 양사간 분쟁 종결로 삼성전자 미국 및 중국 시장에서의 리스크 해소, 향후 유럽시장 수주도 기대

▶ KT, 광주 5G 기지국 장비 노키아에서 삼성전자로 교체

(전자신문)

- 3월말 기준 5G 월간 트래픽 총량은 38만 8,025 테라바이트(TB), LTE는 36만 3,301 TB를 기록
- 동기간 집계된 5G 가입자 수는 1,447.6만명, LTE 가입자 수는 5,118.2만명 기록
- 가입자 수는 LTE가 5G의 3배 이상 많지만, 트래픽 총량으로 보면 5G가 주류 기술 방식으로 등극
- ⇒ 5G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외에 일반 요금제의 데이터 이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 특징
- ⇒ LTE 데이터 이용량은 일부 유저에 집중된 반면 5G 데이터 이용량은 모든 가입자에 고르게 분산

▶ 버라이즌, 애후 · AOL 헐값 매각… "무선사업 주력"

(ZD Net Korea)

- 버라이즌, 5년전 90억 달러에 매입했던 애후와 AOL 등이 포함된 버라이즌 미디어 매각 결정
- 매각 대상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테크크런치, 애후 파이낸스, 엔가젯도 함께 이전
- 버라이즌은 현금 42.5억 달러와 함께 지분 10%를 받는 계약 체결. 거래는 하반기쯤 마무리 예정
- ⇒ 텁블러, 허프포스트, 애후 앤서스등 무선 사업 주력 위해 미디어 사업 매각 지속 추진 중
- ⇒ Verizon은 향후 C-Band를 활용한 5G 인프라 구축 계획과 수익화 전략에 집중할 전망

4 주요 지표

(집계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12,000	22.6	17.4	18.1	1.3	1.5	1.9	2.4	5.1	5.3	6.2	6.0	8.4	10.2
	KT	29,350	6.9	22.0	22.5	1.2	1.3	0.7	0.8	4.5	4.6	2.7	2.7	5.6	6.0
	LG유플러스	14,050	5.5	12.5	13.0	0.9	1.0	0.6	0.7	3.1	3.3	3.6	3.4	8.7	9.4
미국	AT&T	32.2	229.6	173.2	167.2	33.4	33.7	22.7	22.8	53.5	53.1	7.8	7.8	12.7	11.7
	Verizon	58.7	243.1	133.7	136.4	31.7	32.8	20.9	21.4	48.6	50.0	8.1	7.8	28.1	25.3
	T-Mobile	139.1	173.5	79.5	81.6	7.1	9.5	3.1	4.4	27.1	28.2	9.1	8.8	4.9	6.0
일본	NTT	2,847	102.2	107.6	108.6	15.1	15.3	8.4	9.7	28.9	29.1	5.9	5.8	10.8	12.7
	KDDI	3,379	71.7	48.3	48.9	9.6	9.6	6.0	6.0	16.2	16.2	5.3	5.3	14.6	13.8
	Softbank	10,000	192.3	51.6	53.1	29.9	13.6	34.1	7.5	49.9	24.3	6.2	12.7	38.9	12.3
중국	China Mobile	50.0	131.8	123.3	128.3	18.5	19.1	17.2	17.9	45.5	47.1	1.6	1.5	9.5	9.4
	China Unicom	4.5	17.8	49.3	51.9	2.1	2.4	2.2	2.5	15.1	15.8	1.0	1.0	4.3	4.8
	China Telecom	2.9	29.8	63.8	66.4	4.9	5.1	3.5	3.8	19.2	19.8	2.1	2.0	6.1	6.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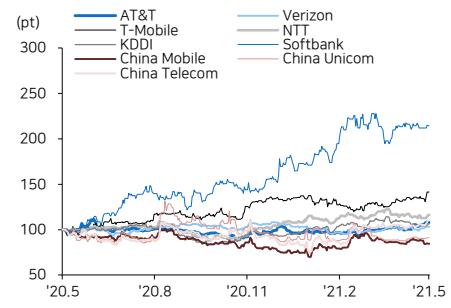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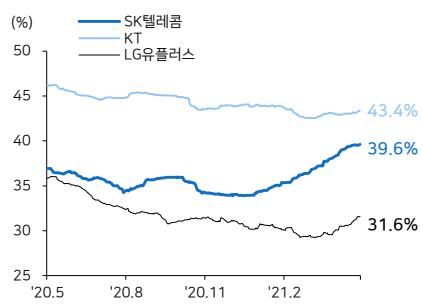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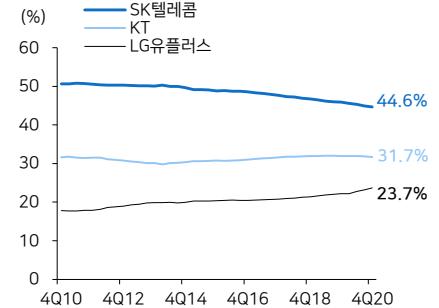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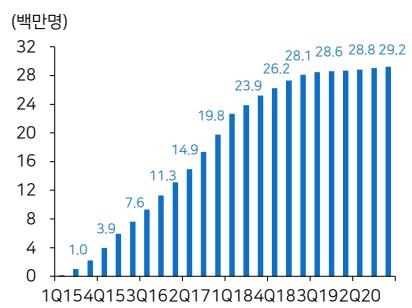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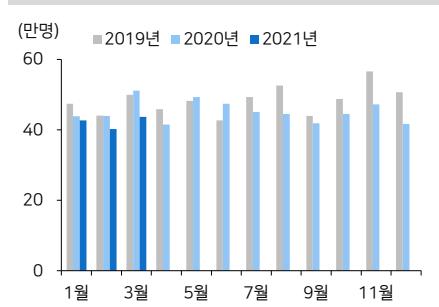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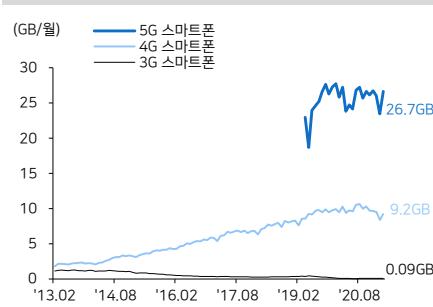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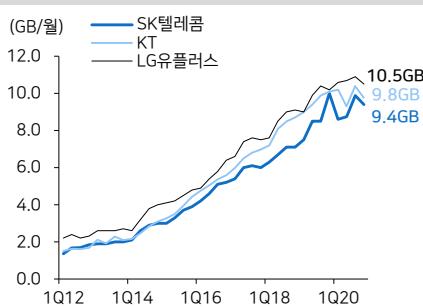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